

백승의 항도 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해 온 나라는 지금 신심과 용기들이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화국의 역사에 큰 자욱을 새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정확히 분석총화하고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필적하여 당과 국가발전사업의 전진방향을 뚜렷히 밝혀냈다.

대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할데 대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심과업과 목표, 주요경제부문별 정비발전방

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방위력을 새로운 발전의 캐노피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의 활로를 확신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목표와 그 수행방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새 목표수행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겠다》, 《모든 부분의 사업을 심오하게 분석총화하고 우리의 전진을 위한 명백한 리정표를 세웠으니 더욱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떻게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그에게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며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저마다 토로하고있다.

나라의 발전과 부흥은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

하여 승리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한다.

이 행성을 둘러보면 조성된 대내외정세와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전략전술과 로선을 제시하는 국가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자기 발전의 곧바른 길을 걸지 못하는 나라들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를 다시금 뼈부로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재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예술,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계시며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매 시기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한 올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어 공화국이 사소한 답보나 침체도 모르고 곧바른 길로 나아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지금도 사람들은 2013년 3월을 잊지 못하고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었으며 그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었다.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만에 공화국에서는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었다.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룩된 이 력사적대업은 위협천만한 시험사격장으로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고 파도치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력진지로 나가신 그의 불같은 헌신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어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되었으며 자기 지방, 자기 공장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 날로 성장하는 공화국의 경제력을 시위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시기 위하여 중요회의들에서 그 실현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수행에 온 나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나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경쟁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사상과 정신을 인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시었다.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로선과 전술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년초부터 한해가 저무는 연말까지 공장, 기업소, 건설현장들을 찾았으시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묘술도 안겨주시고 자체로 생산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며 온 나라에 자력경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계속되는 적대세력의 제압살책등과 뜻하지 않은 도전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곧바로 전진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획기적전진을 가져 오시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

니만큼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자기 부문의 과업과 방도들을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자기 사업에 달라붙고있다.

혁명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다. 그이께서 획기적인 투쟁로선과 방략을 제시하시어 그때마다 공화국은 크게 전진하고 승리를 떨쳐왔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전략전술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립,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에서

송 고 한 정 치 리 념 과 리 상

주제106(2017)년 5월 어느날이었다. 인민생활향상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몇 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새로 꾸민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며 제품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의 경영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

복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리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치이라고, 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을 우리 인민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가나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영정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

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지향시키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나의 리상이라고, 온 사회가 단합되고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는데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 필 새로운 시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 경축열병식의 그 밤에 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온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해의 첫 아침에 사랑과 믿음을 담아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친필서한의 구절구절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 필 새로운 시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 경축열병식의 그 밤에 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온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언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무청사우에 붙인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며 저 구호가 제일 좋다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을 천하제일락원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게 하자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리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며 하신 뜻깊은 말씀을 잊지 못하고있다.

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고 일어나 세 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제기로 된다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언제나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이의 리상은 공화국의 뿌리는 존엄과 인민의 행복이라는 고귀한 결실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다심한 사랑은 우리의 《철족》상표가 붙은 양말이 다른 나라의 상표가 붙은 양말보다 더 좋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평양양말공장에서 어렵고 우리의 화강동공업을 기여이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친 평양화강동공장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문

본사기자 박 철 남

기념사진이 새겨주는 진리

얼마전 뜻깊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기념사진촬영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특히 각이한 장소에서 여러 날째 그리고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대회의 성과적보장에 공헌한 평범한 근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참가함으로써 하여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모았다.

아직도 귀전에는 공화국의 최고대표자이시고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리 걱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고 눈앞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담배 하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른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끊어오르는 심증을 터치고있다.

사진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각이한 의미를 담은 기념사진들을 얼마나 많이 찍어왔던가.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이 자기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찍는 기념사진만큼 특이한 전인력과 커다란 의미를 담고

민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는 일찌기 없었다.

이 나라의 남녀로소 누구나에게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하나같이 말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은것이라고.

공화국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령도자를 흠모하고 그리워하는가는 인민들이 즐겨보는 예술영화 《소원》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영화는 군인가족에 솔소 조정면무대에 올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특연 《소원》을 예술영화로 옮긴것이다. 어느 발전조건설에 참가한 한 군관을 그의 안해가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을 끝내 이루어 되는 실제한 사실을 감명깊게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영화는 관중들의 감흥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남녀로소 누구나, 그가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사무원이든 군인이든 철부지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고 그 기념사진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행복으로 간직하며 자기 가정의 가보로 전해간다.

기념사진들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웠다.

돌아켜보면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인민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못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던가.

언제인가는 퍼붓는 비바람속에서 어느 한 공장의 종업원들을 오래동안이나 기다려주시며 또 언젠가는 평범한 녀병사들을 위하여 날이 저물도록 한자리에 오래도록 서 계시며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어느 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는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가자고 그러자 그들이 몹시 섭섭해했었다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 보고 가겠다고 하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절묘창고에 들리시

여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던 물고기를 가득차있는 물고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구천에 들러오는것만 같고 영광의 그 순간을 되새겨보면 그이의 따뜻한 시선이 온몸에 와닿는것만 같아 새힘이 솟아나온다는것이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중이다.

정녕 그 한강한강의 기념사진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피줄을 잇고 사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가슴뜨거운 화폭들로서 조선이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승리를 떨쳐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의 제일명인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공화국은 그 힘으로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것이 환희와 격동의 당대회로 막을 올린 조선의 2021년 1월에 뜻깊은 기념사진들이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새로운 승리를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유 금 주

선 물 식 물

큰꽃군자란, 호접란




큰꽃군자란 호접란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주제 107(2018)년 6월 중국 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 혁신원 원장이 올린 선물 식물이다.

원장은 중국방문의 길에서 혁신원을 찾으신 그이께서 자신들이 재배하는 많은 꽃들중에서 제일 진귀하고 아름다운 큰꽃군자란과 호접란을 선물로 올리기로 생각하고 정성껏 마련하여 삼가 올리였다.

본사기자

전민이 하나의 승결, 하나의 보복으로

두리에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전진해온 데 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고 멸사복무의 력정을 끝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진 근본원천이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류례없이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인내하고 분투한 일심단결의 힘이 의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체제의 우월성과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송고한 사명감으로 온몸을 불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에서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이 마련될 지름길이 열리고 그이의 헌신적인 령도의 길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소중한 재부들과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지난해 련이어 엄습한 자연재해를 가시고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국각적인 인민사수전, 멸사복무전의 자랑찬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사정없이 겹쳐진 대재난앞에서 강철도 녹일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전체 인민을 산악처럼 일떠세우시고 피해복구전역에 최정수도당원사단과 군대를 고평과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처럼 짧은 기간에 퍼해지역이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변모되는 기적적인 현실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강력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시어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도 오히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시는 정말 고맙다고 거듭 거듭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진정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희망찬 새해의 1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도도히 굽어쳐간 무적의 열병대오들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국각지의 군민련합대회들에서 울려 퍼진 천만사람들의 비상한 총정의 맹세와 애국의 열정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들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애국의 승결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위대한 령도와 무한한 총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그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으로 분출하는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최강의 힘이고 전진과 승리의 위력한 추진력이며 불패성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새로운 승리를 위한 력정에서 이민위천, 자력갱생과 함께 일심단결의 송고한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키고 있으며 자력부강, 자력영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박차며 사회주의건설의 시간표대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있게, 즐겁게 나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섰다. 누구나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경제발전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할 드넓은 심심과 열의에 넘쳐있는 속에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반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과 그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사회주의강국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발전을 중차대한 과업으로 일관하게 내세우시

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다고,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의 속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하도록 하시었고 과학기술전당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 전민학습의 대진당이며 최신과학기술보급사업이라고,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다고,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의 속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하도록 하시었고 과학기술전당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 전민학습의 대진당이며 최신과학기술보급사업이라고,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큰 믿음과 영예로 안겨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증시기풍이 차남치게 하고 어디서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 경험교관운동이 적극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수십차례 달하는 과학기술발표회, 토론회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였다. 이렇듯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 단위의 발전, 세계적인 명제품을 생산해낼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온 나라에 세차게 타설지는 과학기술열풍속에 공화국은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며 그속에서 2021년의 이 한해도 값진 성과를 이룩하는 승리의 한해로 될 것이다.

임 관 옥

세차게 타설지는 과학기술열풍



위대한 어머니당을 긍지높이 노래한 훌륭한 공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정말 훌륭한 공연이다.》,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낸 공연이다.》, 《예술적 형상이 완벽하다.》... 거리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딜 가나 이런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2시간 남짓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다. 서곡 기악과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의 제1부 《당은 우리 향도자》의 무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을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며 주체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끌어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쳐부른 명곡들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열린 60여년전 준엄한 해에 시대를 진감시켰던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관현악과 노래로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남성8중창과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금관합주와 남성합창 《천리마 달린다》는 관람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던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추억을 불러일으켜주었다. 변형하는 조국의 모습을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 무반주합창 《벼가 울 하러 갈 때》와 그림자무용 《황금나무 등금나무 산에 심었소》, 런무 《대흥단 삼천리》, 《모란봉》, 《장고춤》은 관람자들에게 흥만한 정서와 끝없는 희열을 안겨 주었다.

공연의 제2부 《영원히 우리 당 따라》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절절히 구가한 학생소년들의 축하시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해요》, 아동합창과 혼성대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이 울라 장내를 뜨겁게 울 려였다. 《당에 드리는 송가》, 《어머니》, 《어머니생각》,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찬가들은 다정한 손길로 이 땅의 천만자식을 어엿이 키워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의 다할 없는 감사와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를 절절한 열망을 분출 시킨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보여주는 타로춤 《사회주의전진가》, 피아노 2중주와 관현악과 합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의 종곡들도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관현악과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종곡 관현악과 합창과 무용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로동자 리성진은 《공연을 보고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고마움의 마음, 어머니당을 끝까지 따를 총정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결의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김원균평칭 평양음악대학의 김은희교원도 《우리 예술의 발전모토를 보여주는 공연이다.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가 우리 식의 3차원다매체, 특색있는 조명, 수직배경대와 립체적으로 조화되어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놓았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는 관람자들에게 어머니당에 대한 다할없는 감사의 정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었으며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와 과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리 절 민



남조선 각계층 미군기지폐쇄투쟁 전개

최근 남조선에서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련합뉴스》는 경상북도 포항수성사격장에서 또다시 직승기사격훈련을 벌리려고 하는 남조선각계층 미군과 남조선군당국의 움직임에 반발하여 주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선데 대해 보도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2월 이곳에서는 남조선각계층 미군이 직승기사격훈련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현지주민들에게 심

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수성사격장방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직승기사격훈련중단과 사격장폐쇄, 이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들을 벌여왔다.

포항수성사격장방대대책위원회는 이번엔 기자회견에서 60년간 주민들이 각종 훈련에 따르는 불발탄이나 류탄, 소음, 진동, 화재 등으로 위험을 받고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직승기사격훈련예를 통보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없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

적으로 훈련을 강행하려고 한다. 포항시민은 만나라 사람이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포항수성사격장방대대책위원회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격장을 완전폐쇄하고 직승기사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련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련합뉴스》는 20일 부산지역의 청소년 280여명으로 구성된 《미군세군실협



실 쫓아내는 청소년모임'이 남조선각계층 미군의 세군실협 폐쇄를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부산시청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부산에서 미군세군실협실폐쇄요구 서명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있는데 청소년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지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선언을 했다.》 이 문구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민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알고 모두가 지지해주었다.》고 밝히고 청소년선언을 발표했다고 한다.

청소년모임은 지난해 10월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최근 남조선언론 《미디어오늘》이 당국의 대미추진정책을 비판한 어느 한 언론사회적 박사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조선반도정세의 격화와 그 원인, 위협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경제, 학계, 언론 등이 앞장서야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적으로 의존했던 타성에 젖어 거의 손을 놓고있다. 특히 보안법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개입에 대한 비판을 (리적행위)의 수준에서

탄압해온 불행한 과거의 상처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령이도 밝으면 풀들한다는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뿐이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군사적특권을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각종 협정 등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한 나라에 대한 전방

위적통제장치를 유지하고있다.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것인지, 역행하는것인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닥쳐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국민의힘〉을 외면하는것이 현실이다》

- 남조선언론들이 보도 -

최근 남조선에서 서울, 부산시장보추진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의 외면이 더욱 두드러지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높아지고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여당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높아지면 의례히 야당들이 어부지리를 얻어 지지율이 높아지던것과는 대조되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추미애, 윤석열사태》 등 여당의 실정속에 올라섰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

시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민심에도 이상이 감지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낮았다. 《국민의힘》은 ... 여론공세에 밀려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있다. 유권자에게 당의 변화를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경선구도가 옛 인물들의 대결로 정리되며 중도층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발 (반사리익)이

소진되고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새 동력을 찾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의힘》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있다.》

남조선의 《데일리안》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도 《국민의힘》을 보는 민심의 시각이 여전히 회의적이고 변화했다고 평가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인물변화인데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수자는 많지만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야권후보단일화 얘기가 나오는것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것》이라고 비평하였다.

채 주 연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는 《국민의힘》의 성범죄 의혹사건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 실린 만화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고향 (도로 성누리당)》의 제목으로 된 만화는 충남대학교에서 3명의 너학생들에 대한 성추행범죄로 해임되었다가 정직 3개월처분을 받았던 인물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끌어들인 《국민의힘》이아말로 성범죄의 본당이라는것을 신랄

하게 풍자조소하면서 성범죄자의 자진사퇴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놀음은 누가 보아도 《표리다르기》임이 분명하다고 까발하는 해설문을 달았다.

해설문은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달아도 《도로 성누리당》, 《추행의힘》, 진짜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소굴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더욱 극심해지는 주민생활난

최근 남조선에서 경제침체, 각종 재난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에 빠져 허덕이고있다고 여러 언론들이 전하였다.

제일 심각한것은 일자리문제가 최악의 형편에 놓이면서 주민들속에서 비판과 절망감이 날로 커가고있는것이라고 한다.

남조선통계청이 발표한 데 의하면 2020년 취업자수는 2019년에 비해 21만 8 000여명이나 줄어 들었고 실업자는 전 해에 비해 4만 5 000여명이 늘어 110만 8 000여명에 달하고있으며 경제활동을 포기한 주민수도 60만 5 000여명으로서 역대로 가장 많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련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은 수많은 구직자들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직업소개소에 연일 밀려들고있으며 앞으

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올해에도 취업이 안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하면서 한숨만 내쉬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런 속에서 농축산물을 비롯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한다.

《C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악성비루스 사태의 장기화와 조류독감 등으로 농축산물가격이 2019년에 비해 9.7%나 뛰어들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전하면서 주민들이 《밥상물가》가 크게 올라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고통을 토로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한편 집이 없어 길거리를 떠도는 로숙자들의 처지도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함에 의하면 현

제 집이 없어 거리와 골목을 떠도는 로숙자수는 1만 1 3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악성전염병사태를 구실로 로숙자들을 지하로 몰아서 한지로 내몰아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사회 각계가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로숙자들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개탄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언론 《헤탈드경제》는 《COVID-19》사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난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는 사람속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각종 범죄행위들이 성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속에서는 《해결책이 없고 끝이 안 보이는 데서 오는 막막함과 우울감》이 날로 커가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검찰에 대한 각계의 비난 고조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이 《세월》호사건과 관련한 주요인들을 대부분 무혐의처리한것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반발과 비난이 비발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데일리안》, 《KBS》 등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검찰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수사 및 감사의뢰, 정보기관의 유가족사찰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처리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항의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련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한마디로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

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재난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주장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속의 어느 한 《국회》의원인 인터넷에 《로골적인 봐주기수사다. 검찰의 맹랑수사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자료제출요구안의 조속한 통과와 《세월》호추검의 필요성만 높여야 한다.》는 글을 올린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하면 제2의 《검찰특별수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고 전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종로구의 가족통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검찰특수단은

17개 혐의중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5건은 무혐의처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갖고있는 주요의혹들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약속리행을 위해 당국이 직접 나설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기자회견이후 그들은 삭

발식을 통해 자기들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이진 보수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범죄행위로 하여 앞으로 남조선에서 검찰개혁투쟁이 더욱 강력히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검찰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각종 파쇼악법들을 휘둘러

지난날 조선을 남장도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한 일제는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민족을 억압착취하고 탄압학살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악법들은 정치적으로는 조선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을 강화하며 경제적으로는 조선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강그리 털어내며 문화적으로는 조선의 고유한 민족특성과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조작한 많은 악법들가운데는 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저들의 침략전쟁에 뒷받침을 위한 《국가총동원법》도 있다.

1938년 4월 법률 제55호로 조작공포된 《국가총동원법》은 모든 경제활동을 전신의 요구에 맞게 강요하며 로력부족과 물자부족을 통치기관의 강권으로 해결하기 위한 파쇼적인 전시악법이였다.

《적령》(왜왕의 명령)에 따라 조작된 이 악법은 침략전쟁에 필요한 전략물자는 물론 모든 로력을 동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악법은 출판보도와 징벌처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있으며 조선의 모든것을 강제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류례없는 파쇼악법이였다.

일제는 이 악법을 1938년 5월부터 조선에서 준비단계를 설정하고 적용하였으며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개시된 군사정세와 저들의 태평양전쟁도발준비를

다그쳐야 할 긴박한 형편에 대응하여 1940년부터는 그 적용범위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제1 부위적으로 악랄하게 적용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1939년), 《국민근로보충령》(1941년), 《기업정비령》(1942년), 《해군특별지원령》(1941년) 등 악법들을 연이어 조작하여 적용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사람들은 살인적인 로동강도와 무한정 긴 로동시간에 얽매어 혹사당하였고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가꾼 농산물들은 강그리 수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청장년들은 침략전쟁의 대포방으로 내몰려 무참히 학살당하였으며 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광, 광산, 군사시설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의 엄청난 로동력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1940년 1월에 《조선직업소개령》을, 1943년 9월에 《개정국민징용령》을, 1944년 8월에 《장년전선에 대한 징용령》 등 각종 악법들을 연이어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에 대한 의무적인 강제징발과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법제화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로동력탈탈기구도 새로 내었다.

중일전쟁개시이후에 조선총독부안에 새로 《자원과 민족조사과》를 설치하였는데 이 과들의 기본기능은 조선의 방대한 로력자원과 인구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

하여 총동원계획의 기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었다.

또한 《내무국》에 새로 《사회과》를 내오고 각 도의 직업소개소를 통한 이른바 로력자모집체계를 세웠다.

이것은 전시 부족한 로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의 하나로서 《조선인로력자모집》이라는 간판에 일본 땅에 끌여가기 위한 로동력 징발체계가였다.

일제의 로동력징발기구체는 1940년대초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게 개편강화되었다.

제반 사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인적 및 물적자원탈탈방안이 매우 면밀히 정제화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파쇼악법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처지가 노예와 같았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생존권까지 박

탈하였으며 강제로동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생명을 내야 하는 무시무시한 로동관에서 16~18시간이상의 고된 로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 시기 일본에 건설된 철도는 그야말로 《침묵 하나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로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부설되었다.

일제는 폐망을 전후하여서는 이른바 《비밀업수》의 명목으로 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강제징용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야수적행동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과거 징용자들은 대상으로 각종 파쇼악법들을 조작, 발동하여 련행, 탐착하고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소에서 무참한 죽음과 가족들 노예로동을 강요한 사실은 일제야말로 특대형인권유린자, 국악무도한 전범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일제에게 가혹한 고문과 구타를 당한 조선인징용자들

사랑의 공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 주제 102(2013)년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공장합숙을 잘 꾸려 주겠다고 하시면서 험한 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합숙부지를 돌아보시고 합숙을 최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친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정

에 떠받들려 합숙은 18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동자들의 공전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그 후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2018년 촬영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매 층의 중앙홀 마다에는 대형액정텔레비전과 특화기, 화면반주음악기 등이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다. 내부구조가 합리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진 침실들은 고급살림집을 연상시킨다. 합숙생들이 여가시간에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십대의 컴퓨터

가 설치된 전자도서관과 수많은 도서들이 가득한 일반 도서관이 있으며 식당과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상점 등도 갖추어져 있다. 참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노동자들을 위한 사랑의 공전, 행복의 집이고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인민의 꿈과 리상을 설계에 담아

일마진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찾은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특색있는 설계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이곳 건축가, 설계가, 연구사들의 불같은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배일을 그리기 가구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승고한 자각을 안고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건축 창작연구기지에서의 사색과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귀이 곁을 매지 못했다. 이곳 설계연구소의 최규범부실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 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백두산건축연구원이 그 어떤 대상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관록있는 건축 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원의 건축가, 설계가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혀준대로 굴지의 유색건축광물생산지

인민적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형성안을 비롯하여 말저진 설계창작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창작전투에 진입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 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살려는 불타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견제 연구소에서도 건설부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지난 시기 국내산 색칠에 대한 색미장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석고와 세멘트를 가지고 천연돌문양장식 타일을 만들어 여러 건설대상물의 외벽에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마감건재류, 난연재, 보온재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에서 만난 정명호설계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건설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고 하면서 색칠장재료의 국산화를 더욱 완성하며 저품위색고에 의한 분말형건축메우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는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면모를 결정하는 마감건재를 국내생산으로 충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기세차게 진행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는 이곳 연구원의 건축가, 설계가, 연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질 눈부신 배일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철



자랑 많은 우표수집가가정

김일성종합대학 수석부 교원 리광선의 가정은 자랑 많은 우표수집가가정이다. 교수준비로 바쁜 속에서도 리광선교원은 우표수집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새해의 우표들을 수집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신 다양한 주제

의 우표들과 함께 역사, 과학, 문화, 풍습, 민속음식 등을 반영한 4500여종의 각종 우표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우표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우표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리광선교원은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문화교류추진대회에 참가하여 이목을 끌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수집한 우표들을 보면서 자란 그의 아들딸들도 정열적인 우표수집가들이다. 지금까지

리광선교원의 딸이 수집한 각종 우표는 근 3000종에 달한다. 대학생인 그의 아들도 아버지와 누나의 뒤를 이어 우표수집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에 리광선교원과 그의 딸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우리의 3대전략자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리광선교원은 조선우표에 호가동맹의 회원이다. 수집한 우표들을 한장한장 볼 때마다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긍지높이 안아보기도 하고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 줄 결의를 다짐한다는 리광선교원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지금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의지로 가슴을 끓이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에 접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바쳐갈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는 사람들과는 한 과학자도 있다. 그가 바로 평양향료공장 향료연구소 소장 최동광선생이다.

어제날의 맨발소년이...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인간이라면, 특히 과학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경지에 올라선 그를 보며 기자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모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새해에 들어와 일흔살이 된다는 최동광선생이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의 흔적이런 듯 회이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하는 말이다. 1951년 일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났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농사꾼이었다고 한다. 대학생과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늘땅같은 차이에선 사연이 있었다. 뛰어난 머리와 향학열을 가진 아버지를 대학공부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남의 집 소작살이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아버지와 그의 3남매는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이라고 한다면 신발이 없어 늘 맨발로 다녔던 생각, 비가 온 다음날이면 참대밭에 들어가 새로 들은 참대순을 잘라먹던 생각이 먼저 떠오르군 합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이루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사랑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천연향료연구에 한생을 바쳐가는 과학자

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 한바탕에 앉아서 기쁨속에 마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다. 아버지는 그토록 소망했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어머니는 인민반장으로 사업했고 그들 3형제는 대학생으로 자라났다. 형제중에서도 남달리 공부를 잘하였던 최동광선생은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 입학하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학문인 화학을 전공하자, 화학

공업이 발전해야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많은것을 해결할수 있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화학에서도 제일 힘든 물리화학을 선택했다. 뛰어난 두뇌와 피나는 정열은 전과목 최우등의 성적으로 이어졌다. 어제날의 맨발소년이 주제 교육의 최고전당에서 배움의 꿈을 활짝 꽃피우게 되었다. 오늘은 학계에서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당당한 권위를 지닌 과학자도 명성떨치게 되었다.

기술향료연구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1993년 어느 일요일, 장기에 호가이기도 한 최동광선생은 전쟁로병들과 함께 장기를 두는 과제를 새 연구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들속에는 전쟁시기 군의로 복무한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소나무수림속에서 수출한 환자들은 다 살아났다는것이였다. 최동광선생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합성향료들의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천연향료가 가지는 건강보호효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 민족과 같은 인원을 맺어주는 소나무를 주인공으로 하는 천연향료를 개발하려는 그의 노력은 몇몇후 최동광선생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세계향료업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야 천연향료개발에 나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 연

구소에서는 최동광선생이 개발한 청송향에 대한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일치하게 천연향료의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천연향료개발성과에 감동된 유엔의 어느 국제기구는 향료분석실험을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들과 생산실험을 향료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청송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고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특허전람회에서도 금상을 수여받았다. 청송향뿐아니라 송진유를 비롯한 최동광선생이 연구한 천연향료제품들은 2018년 평양국제특수생산물 및 가구전람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청송향정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방안과 사무실, 위생실 등에 일체 잡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속에 음이온이 생겨나 마치 소나무수속에 들어온것 같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여러가지 기능성청송향

과는 바꿀수 없다고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노동자들을 무참히 희생시키던 성진계강소(당시)에 있던 원천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신 력사적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민의 리익과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중시 정책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천연향료 - 청송향

활용하려는 학자들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향료공업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발전하고있다. 당시 세계의 향료업계는 천연향료보다는 합성향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조선사람의 정서와 미감에 맞고 건강에 유익한 우리식의 천연향료를 연구하자.) 이런 결심과 흥분을 안고 향료연구의 길에 들어섰지만 정작 그 세계는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파고들면 들수록 미지의 세계였다. 탐구의 낮과 밤은 계속되었다. 천연향료연구에 대한 국가적관심속에 강력한 연구진이 무어졌고 최동광선생은 향료연구실 실장으로, 평양천연향료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이 날날 그가 연구한 해당 화절대유체 조방 방법은 1989년 국제청년발명 및 새

향기를 인간생활에 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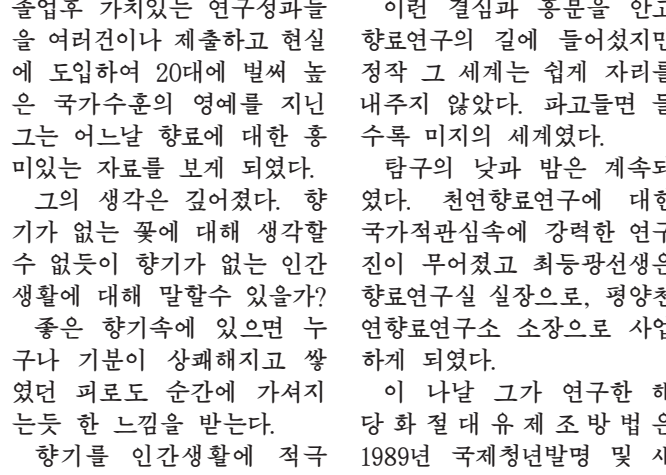
기술향료연구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1993년 어느 일요일, 장기에 호가이기도 한 최동광선생은 전쟁로병들과 함께 장기를 두는 과제를 새 연구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들속에는 전쟁시기 군의로 복무한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소나무수림속에서 수출한 환자들은 다 살아났다는것이였다. 최동광선생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합성향료들의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천연향료가 가지는 건강보호효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 민족과 같은 인원을 맺어주는 소나무를 주인공으로 하는 천연향료를 개발하려는 그의 노력은 몇몇후 최동광선생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세계향료업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야 천연향료개발에 나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 연

구소에서는 최동광선생이 개발한 청송향에 대한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일치하게 천연향료의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조선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천연향료개발성과에 감동된 유엔의 어느 국제기구는 향료분석실험을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들과 생산실험을 향료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청송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고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특허전람회에서도 금상을 수여받았다. 청송향뿐아니라 송진유를 비롯한 최동광선생이 연구한 천연향료제품들은 2018년 평양국제특수생산물 및 가구전람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청송향정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방안과 사무실, 위생실 등에 일체 잡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속에 음이온이 생겨나 마치 소나무수속에 들어온것 같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여러가지 기능성청송향

이것은 최동광선생에게 있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누구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실것을 자기 사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가사는 누구나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다해 가꾸어가는 행복의 밑천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집안일은 중요하리라는 차이를 차지하고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은 그런 생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나라 과학자가 아닙니까? 우리 식의 천연향료를 많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가사처럼 여기고 여기에 한생을 바쳐갈 결심입니다.》 최동광선생과 같은 과학자들이 많아 이해에도 조국땅에 우리의 향기, 애국의 향기가 더욱 짙게 풍길 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자라를 잡아가지고 팔아 돈을 마련하였을 때였다고 한다. 배고프고 험벗은것도 참을수 있었지만 제일 참기 어려웠던것은 일본아들들에게서 당하는 민족적이었다. 조선사람이라고 하여 못매를 맞기도 하고 치마저고리를 입었다고 하여 녀학생들의 웃이 찢기는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땅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던 그를 따듯이 품어주고 보살펴준것은 사회주의조국이었다. 9살 나던 해에 최동광선생은 한 가족을 귀국선을 타고 그처럼 그림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것이다. 《조국의 품에 안길 때 어머니는 큰 밤상 한개를 마련해가지고왔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꿈이 깃든 밤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초기에는 대학공부를 하느라 집을 떠나있었고 졸업후에는 총련사업으로 나가살다 싶이 하였던지라 언제 한번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모여앉아 밥을 먹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국에 가서는 다섯식구가 모여앉아 맘편히 밥을 먹게 되었다고 꼭직한 밤상을 마련했던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이루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사랑

제일 기본 때는 형님과 함께



천연향료연구를 심화시키는 최동광선생 (가운데)



천연향료연구를 심화시키는 최동광선생 (가운데)

통일산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통곡서원

어찌 보면 꿈틀거리며 솟구쳐오르는 통의 모습인듯 하늘높이 치솟은 산봉우리

문화유적들로 하여 더욱 유명하다. 그 유적들속에는 통곡서원도 있다.

방울 차린데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동행한 리일심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는 통곡산의 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원이라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통곡서원이 평양지방출신 유학자 돈암 선우협을 추모하며 그가 살던 집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산기슭의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리용하여 앞에서 뒤로 가면서 조금씩 높아진 땅위에 건물들을 차례로 지은 통곡서원은 여러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리고 본전을 비롯하여 모든 건물들이 중세시대의 우수한 건축술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곳 판리원의 말에 의하면 서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것 외에도 당대의 이름있는 유학자들의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사격강자 리호준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미더운 체육인들 가운데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이름을 떨친 인민체육인 리호준도 있다.

으로 발전한 공화국의 사격기술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국제경기인 동시에 리호준의 기술과 정신력을 보여준 경기대회였다.

거리에 있는 목표판의 반경이 0.62cm인 작은 10점원 안에 60발을 쏘아 59발을 명중시키고 한발은 9점 안에 쏘아 넣어 최고점수 599점을 받았다.



김만유병원 기능회복치료과의 의료일꾼들이 환자치료와 의과학연구소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는 의과학연구성과들을 환자치료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모든것이 부족한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감당치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시중호의 감당을 환자치료에 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과업을 높은 치료 및 의과학연구성과로 관철할 이들의 불같은 열의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속담과 뜻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인체에 가장 효과적인 체온

인체가 36~37°C의 체온을 유지하는것은 이 온도가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기때문이다. 19세기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정상체온은 36.5°C였다.

❖ 겨울날 진눈가비 굴리듯.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마구 굴리고 썰먹는 꼴을 비유하는 말.

생황과 라각

서복죽이나 북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하늬바람》이라고 한다. 18세기의 책 《성호세설류선》에서는 서풍을 《하의》라고 하였고 《이아》라는 책에서는 이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였다.

에로부터 전해오는 민중악기

생황과 라각



《한》은 형용사 《하다》의 줄기 《하》에 토 《ㄴ》이 붙은 형태로 《큰, 많은》의 뜻을 가리키었다.

옛날책에서 《하늬》를 《한의》라고 하고 《태풍》이라고 한것은 이 말이 이루어진 연원을 반영한것이다.

《하늬바람》은 큰바람이라는 뜻에서 《한의바람》으로부터 이루어진 말이다.

사화

돌탑에 깃든 녀 (3)

글 장성철, 그림 김윤일

더우기는 판리통에 젊은작인들은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모두 정방산성으로 들어가고 남는것이란 늪은 하인 몇과 아내들뿐이라 물에 빠진 늪 지루해가라도 잡아야 한다 했거늘 류자림의 처지에서 보면 석철복은 그야말로 석탈가물에게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먹은 난알이 이렇게 빛으로 되었던것이다. 석철복은 쓴입을 다셨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싹 손을 털고 나갔어야 했을걸 하는 후회가 풀어올랐다.

매달렸다. 《가지 말아요. 싸움이 끝난 다음 피죽을 우려먹으면 서라도 빛을 잡지요. 예?》 석철복은 안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맺는가? 석철복이 서둘러 돌질을 하면 자기 목숨과 재산을 구원하지 못할것 같아 류자림은 흰 무명옷을 걸친 사나이들이 왜놈이란 소리를 입밖에도 내지 못했었다.

말을 이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입자 내 시키는대로 하게나. 이제 날이 밝으면 저 진물이에 감춰놓은 식량을 실어오라구. 지금 이 왜것들이 식량이 없어 썰쩍매는데 순순히 실어만 오면 값을 후하게 주겠다누만. 식량을 실어오지 않으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네. 자

라? 안된다! 이 더러운놈아!》 목덜미를 잡힌 류자림이 버드러거리다가 썩 소리를 내질렀다. 《살인이다!》 그 소리를 듣고 한무리의 왜놈들이 자기쪽으로 달려들자 류자림을 단번에 내동댕이쳐 돌을 날렸다.

골두부탕

골두부탕은 굴에 두부와 여러가지 음식감을 두고 만든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굴(간갯) 150g 일 때 두부 100g, 버섯 50g 과 양념감으로 파 10g, 마늘 5g, 간장 15g, 후추가루 0.5g, 기름 10g, 붉은실고추 1g, 맛내기 0.5g을 준비한다.

속셈

《알겠소이다.》 《그럼 냇에다 열을 더해라.》 《...》 《그래, 다 쓰고 계산했느냐?》 《종이와 붓이 있어야 써놓을게 아니요이까?》



숨을 치고있는 석철복이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있던 류자림이 한숨을 푸- 하고 내뿜며 말했다. 《어찌했나. 우선 살아야 할게 아닌가. 맹감을 따먹어 두 이승이 좋다고 하지 않잖나.》 잠시 말을 끊고 석철복의 눈치를 다시 살피고있던 류자림이 한동안 머뭇거리다가